

판단사 형성과정에서 ‘是’의 형식적 특징

鄭賢愛(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xianai@hanmail.net)

차 례

1. 서론
2. 판단문의 정의와 형식
 - 2.1 판단문의 정의
 - 2.2 판단문의 형식
3. 대명사 ‘是’의 주어 지향성
 - 3.1 ‘爲’ 판단문의 주어 ‘是’
 - 3.2 ‘謂’ 판단문의 주어 ‘是’
4. 대명사 ‘是’의 술어 결합성
 - 4.1 ‘是’와 NP 술어의 결합
 - 4.2 ‘是’와 非NP 술어의 결합
5. 결론

1. 서론

현대중국어 판단사 ‘是’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명사 ‘是’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대중국어 판단문의 한 형식인 [주어, 대명사 是+술어]에서 대명사 ‘是’의 통사위치가 [주어+판단사 是+빈어]에서 판단사 ‘是’의 통사위치와 같기 때문에 ‘유추’¹⁾의 문법화²⁾ 기제에 의해 문법기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王

1) 어떤 언어 형태가 의미나 기능, 음성적으로 비슷한 언어 형태에 동화하여 변하거나 또는 그런 형태가 새로 생겨나도록 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성하(2000), 『문법화의 이

力(1980), 石毓智(2001) 등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판단사 '是'가 기원한 통사구조는 찾았다고 할 수 있지만, 왜 '是'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대중국어의 판단문 형식[주어, 대명사 是+술어]에서 대명사 '是'의 위치에는 대명사 '此'도 쓰일 수 있었다. 그런데 '是'는 '유추'에 의해 판단사로 발전했고 대명사 '此'는 변화하지 않았다.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가 동시에 여러 개 사용될 경우에 더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단어가 최종적으로 그 기능을 전담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판단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명사 '是'와 '此' 역시 동일한 경쟁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단사 '是'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명사 '是'가 지녔던 우월한 조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³⁾

2. 판단문의 정의와 형식

2.1 판단문의 정의

상고중국어에 전문적인 판단사가 있었는지, 무엇이 판단사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판단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판단문을 정의할 때 중국의 언어학자들은 주어와 술어를 구성하는 성분 혹은 주어와 술어의 의미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성분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은 王力(1993[1962])의 견해이다. "판단문은 명사 혹은 명사성 구(詞組)가 술어가 되어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⁴⁾고 하며 판단문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분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郭錫良 외(1996)와 賀敬華(2006), 肖姬曼(2005) 등의 견해이다. 郭錫良 외(1996)는 "판단문은 어떤 사물이 어떤 물건이거나

해』, 한국문화사, p.227

2) 의미적으로 완전한 단어들(이것을 내용어 또는 어휘어라 부른다)로부터 별 의미가 없이 문법기능만을 주로 하는 단어들(이것을 기능어라 부른다)로 바뀌는 변화를 문법화라고 한다. 위의 책 p.21

3) 漢代에 판단사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므로 그 이전의 문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예문을 추출한 문헌은 『論語』, 『左傳』, 『禮記』, 『孟子』, 『荀子』 등의 5가지이다.

4) 判斷句是以名詞或名詞性詞組爲謂語, 表示判斷的。王力(1993[1962]):241)

아님을 나타내고, 어떤 사물이 어떤 부류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음을 나타낸다.”⁵⁾고 정의하여 판단대상과 판단내용 사이에 ‘일치’ 혹은 ‘분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판단문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賀敬華(2006)는 주어와 술어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 ‘동등(等同)’, ‘분류(分類)’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판단문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肖姪曼(2005)은 “‘是’ 후속성분의 성격과 관계없이 주어와 빈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는 것이 판단문의 본질”⁶⁾이라고 했다.

楊伯峻·何樂士(2001)처럼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무엇이 판단문인가? ……협의의 판단문은 아래의 조건을 갖춘 것만을 가리킨다. 첫째, 주술 부분이 일치관계를 이룬다. 둘째, 주어는 대부분 명사, 대명사로 충당되고 술어는 명사 혹은 명사구로 이루어진다. 셋째, 주어와 술어 사이에 계사가 있어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⁷⁾라고 하여 명사나 명사구로 이루어지고,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이 ‘일치’관계를 이루는 것만을 판단문에 포함시켰다.

필자는 한 단어가 형태변화 없이 여러 문장성분을 담당할 수 있는 중국어의 특성상, 동사나 동사구 역시 주어와 빈어의 문장성분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문 주어, 술어의 성분을 명사나 명사성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문을 정의하면 특정 형식으로만 편중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분과 관계없이, 주어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술어에서 판단의 내용을 밝히는 범주적 판단(categorical judgement)의 논리구조가 반영된 문장을 판단문으로 분류한다.

주어와 술어 간의 의미관계는 ‘일치’, ‘분류’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며 아울러 ‘설명’의 관계를 추가할 것이다. ‘일치’는 ‘동등’과 같은 의미로서 판단대상과 판단내용, 양자가 동일한 대상이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분류’는 어떤 사물, 대상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술어의 내용은 주어가 속하는 부류이거나 그 속성으로 이루어진다.

5) 判斷句表示某种事物是什么東西或不是什么東西, 某种事物屬於某一類或不屬於某一類。郭錫良等(1996:295)

6) 對主語和賓語之間是否具有某種關係進行斷定, 這是判斷句的實質。肖姪曼(2005:12)

7) 什么是判斷句?……狹義地說判斷句只指具有以下條件的句子:(一)主謂兩部分有等同關係;(二)主語多由名詞、代詞充任, 謂語由名詞或其短語充任;(三)在主謂之間多有系詞連系。楊伯峻·何樂士(2001 : 705)

본 논문에서 '설명' 관계로 분류하는 판단문은 술어에서 주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현대중국어 동사 '是'의 의미항목에서 '我肚子疼, 是昨夜里吃得太多了。'와 같은 용법의 기원을 확인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2.2 판단문의 형식

중국어 판단문의 형식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면서 다소간의 변화를 보이는데 주어와 빈어를 연결하여 판단관계를 표시해주는 판단사의 사용여부가 그 내용이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어의 판단문 형식이 겪어온 변화를 요약하자면, 판단사가 쓰인 판단문과 쓰이지 않은 판단문의 두 형식이 함께 사용되던 국면에서 판단사가 쓰인 판단문의 절대 우위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고대중국어의 판단문 형식을 고찰하여 판단사 '是'가 발생할 수 있었던 환경을 살펴볼 것이다. 고대중국어에 병존했던 두 판단문 형식을 분류함에 있어서, 편의상 판단사가 쓰여 형식적으로 판단문임을 드러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표지 판단문과 무표지 판단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⁸⁾ 판단사 없이 주어와 술어가 직접 결합하는 형식의 판단문을 '무표지 판단문', 주어와 술어 사이에 판단사가 쓰여 판단문임을 가지적으로 표시해주는 형식을 '유표지 판단문'으로 분류하여 그 형식을 살펴볼 것이다.

1) 유표지 판단문⁹⁾

(1) '爲' 판단문

'爲'는 고대중국어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다.¹⁰⁾ 고대중국어에서 판단사로 분류되는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문적인 판단사가 아니라 여러 용법

8) 판단문임을 가지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지에 판단사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의 '표지'는 판단사로 제한된다.

9) 선진시기 중국어에 판단사가 존재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판단사 형성과정에서 대명사 '是'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여주었던 대명사 '此'보다 우월한 조건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판단사의 존재여부나 종류 등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대명사 '是'가 주어로 쓰인 예가 있는 판단사만 대상으로 서술한다.

10) 『古代漢語詞典』(2001)에는 2성의 '爲'가 갖는 의미항목만 ①制作, ②修筑, ③作, ④种植, ⑤治理, ⑥研討, ⑦担任, ⑧變爲, ⑨当作, ⑩算是, ⑪叫做, ⑫表示判斷, ⑬使, ⑭有, ⑮參與, ⑯創造, ⑰連詞, ⑱助詞, ⑲語氣詞 등의 19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北京:商務印書館

가운데 판단사의 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王力(1993[1962])은 고대중국어의 판단문에 대해 서술하면서 판단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爲'의 용법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하였다. 상고시대 판단문에서 '也'가 문장 끝에 쓰여 판단의 의미를 돕는 문장에서는 '爲'가 쓰이지 않았고 또 '爲'가 쓰인 문장은 '也'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즉, '爲'가 쓰인 문장은 '也'의 단정 작용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예문을 추출해 본 결과, 극소수에 불과할지라도 '爲'와 '也'가 함께 쓰인 예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也'는 단정의 어감을 보조하는 단어이지 이것 자체가 판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¹¹⁾ '也'의 분포와 무관하게 '爲'의 판단사 기능은 인정할 수 있다.

郭錫良 외(1996)에서도 '爲'가 소수의 예에서 판단사의 용법으로 쓰였음을 언급하였다.

(1) 余爲伯儵，余而祖也，以是爲而子。(『左傳·宣公三年』)

(나는 백조(伯儵)이다. 나는 너의 조상인데 '이것'으로 너의 아들을 만들어주겠다.)

楊伯峻·何樂士(2001)도 판단사 '爲'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사로서 '作爲', '成爲', '算作' 등의 의미를 거쳐 판단을 나타내는 계사용법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의미 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는 예문도 있다.

(2) 周公旦爲天下之聖人；關叔爲天下之暴人。(『墨子·公孟』)

(주공 단은 천하의 성인이고, 관숙은 천하의 포악한 자이다.)

(3) 楚爲荊蠻。(『國語·晉語八』)

(초는 형만(지명)이다.)

11) 王力(1993[1962])은 주어 뒤에 '者', 문미에 어기사 '也'가 쓰여 서로 호응하는 문형이 고대중국어 판단문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했고, 郭錫良 외(1996) 역시 고대중국어의 판단문은 판단사를 쓰지 않고 판단문 술어 뒤에 어기사 '也'를 써서 판단을 돕는다고 했다. 楊伯峻·何樂士(2001) 역시 '也'를 어기사로 처리하고 있는 등 대체로 '也'는 판단에 필요한 단정을 나타내는 어기사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또 '爲'가 판단사로 쓰인 판단문에서 술어가 형용사나 동사인 경우에는 성질,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4) 不知此爲不仁義也。(『墨子·天志下』)

(이것을 모르는 것은 인의답지 않은 것이다.)

(5)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孟子·盡心下』)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社稷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예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爲'가 판단사로 쓰인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 내에서 '爲'가 판단사로 사용된 용례는 그 수가 매우 적다.¹²⁾ 그렇지만 동사의 의미 없이 주어와 술어의 '일치'를 표시하는 문장에서의 '爲'는 판단사로 처리한다.

(2) 謂판단문

'謂'는 '對某人說', '叫作', '称作' 등의 어휘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謂'가 [주어+謂+빈어]의 구조에서 주체의 동작을 표시하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판단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謂'를 통해 주어와 빈어의 '관계'가 설명되는 경우만 판단사로 분류한다.

'謂'의 기능이 주어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빈어 간에 '일치', '분류'의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는 점을 근거로 '謂'를 판단사로 분류한 것이다.

(6) 許無刑而伐之, 服而舍之, 度德而處之, 量力而行之, 相時而動, 無累後人, 可謂知禮矣。(『左傳·隱公十一年』)

(허나라가 비록 법도를 어겨 정벌했지만 이미 죄를 자복하자 이를 널리 용서했

12) 고대중국어에서 판단사 '자리'에서 판단을 표시했던 '爲', '乃' 등이 현대중국어의 전문적인 판단문으로 발전해오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용법 가운데 판단사로 쓰인 용법이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했던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肖姬曼(2003)

다. 또한 허나라의 덕행을 헤아려 처리하고 자신의 힘을 헤아려 알맞게 시행했다. 나아가 시세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후세사람에게 누가 없게 했으니 가히 예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7) 紂囚文王七年，諸侯皆從之囚，紂於是乎懼而歸之，可謂愛之。(『左傳·襄公三十一年』)

(은나라 주가 주문왕을 잡아 7년 동안 가두었는데 제후들이 모두 주문왕의 뒤를 좇아 자신들을 수급할 것을 청하였다. 주가 크게 두려워하여 주문왕을 석방하여 돌려보냈으니, 제후들이 주문왕을 애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7)의 '謂'는 해석에서 '~라고 하다'라는 의미로 풀이되었지만 주체의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 후 두 성분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판단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謂' 앞의 문장을 판단대상으로 하여 '謂' 뒤에서 그에 대한 속성, 종류 등을 표시하는 판단문이 된다.

2) 무표지 판단문

무표지 판단문이란, 판단사의 연결작용 없이 판단대상(주어)과 판단내용(술어)에 해당하는 두 성분이 직접 결합하여 판단을 표시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판단사가 쓰여 판단문임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무표지 판단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무표지 판단문의 세부적인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기본 형식

[주어(者¹³), 술어(也)]

(8) 農，天下之本。(『史記·孝文本紀』)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13) 賀敬華(2006)는 주어 뒤의 '者'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의 단어를 지시하는 조사라고 하였다. '者'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은 문장에서 처음 출현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려는 대상일 수도 있고 강조되는 대상일 수도 있으며 '也者'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

(9) 陳軫者, 游說之士。(『史記·張儀列傳』)

(陳軫은 유세객이다.)

(10) 張騫, 漢中人也。(『漢書·張騫傳』)

(장건은 한중사람이다.)

(11) 南冥者, 天池也。(『莊子·逍遙游』)

(남쪽 끝의 바다란 하늘의 연못이다.)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주어와 술어가 직접 결합하여 판단문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가장 간단하게는 주어와 술어에 해당하는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者'와 '也'가 주어 뒤, 술어 뒤에 각각 쓰여 호응을 이루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으로 쓰이는 요소는 아니다.

(2) 변형식

[주어, 是/此술어也]

(12) 怒不過奪, 喜不過予, 是法勝私也。(『荀子·修身』)

(노여워도 지나치게 빼앗지 않고 기뻐도 지나치게 주지도 않으니, 이는 법도가 사사로움을 이기는 것이다.)

(13) 夫欲惡避就, 固不待師, 此人之性也。(『莊子·盜跖』)

(탐나는 것을 얻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일은 스승을 기다릴 것 없이 이루어 지니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주어와 술어 사이에 대명사 '是' 또는 '此'가 삽입되는 이 형식은, 간단한 구조의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진 형식 (1)과 달리 대부분 복문에 사용된다. 앞 절에서 상황을 표시하고 이 절을 판단대상으로 하여 뒷 절에서 판단내용을 밝히는 형식이다. 여기에서 대명사 '是'와 '此'가 담당하는 기능은 앞 절을 '지시'¹⁴⁾하는 형식주어이다.

14) 중국어 논문에서는 대명사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夏指', '重指', '回指'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명사의 이 기능을 '지시'라고 일괄 서술하기로 한다.

대명사가 전방조응사(anaphor)¹⁵⁾로서 주어를 '지시'하는 경우는 주어의 구조가 길고 복잡해졌을 때로서, 대명사의 '지시' 기능으로 주어와 대명사 사이에는 휴지(pause)가 생긴다. 통상적으로 판단문의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휴지를 두게 되는데 이것은 대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賀敬華 2006). 하나는 주어가 간단한 경우 휴지를 뒹으로 해서 주어와 술어가 하나의 성분으로 결합되어 통사 구조상의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판단문의 주어 내용이 복잡해서 중간에 휴지를 뒹으로써 듣는 사람이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명사 '是', '此' 등을 써서 앞에 위치한 판단문의 주어를 지시하는 이유이다.

아래에서는 각 판단문 형식에서 주어기능을 담당하는 대명사 '是'와 '此'의 특징을 비교하여 판단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是'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3. 대명사 '是'의 주어 지향성

대명사 '是'는 무표지 판단문뿐만 아니라 유표지 판단문에서도 앞의 내용을 '지시'하면서 판단사의 주어가 된다. 이러한 특징을 대명사 '此'와 비교해 보자.

3.1 '爲' 판단문의 주어 '是'

'爲'가 판단을 표시하는 판단사로 사용된 문장에서 대명사 '是'가 형식주어로 쓰인 예는 연구범위 내의 모든 저작을 통틀어도 그 수가 매우 적어서 『論語』, 『禮記』, 『孟子』, 『荀子』에 각각 1개, 2개, 1개, 1개 정도에 불과하다. '爲'가 동사 자리에 사용된 예 자체는 더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되다', '하다'라는 동사 의미가 아닌 주어와

15) 대명사가 문맥적 대상을 가리킬 때 이를 조응사(照應詞)라 한다. 선행문맥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전방조응사(anaphor), 후행문맥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후방조응사(cataphor)라고 한다. 대명사라는 것이 '명사를 대신한다'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으로 알기 쉬우나 명사를 통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대명사이다. 지시는 상항지시가 기본이며 문맥적 대상이나 관념적 대상에 대한 지시는 부수적인 것이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8)의 대명사 항목

목적어의 관계를 표시하는 판단사로 쓰인 예만을 추렸다기 때문이다.

(14) 幼而不孫弟，長而無述焉，老而不死，是爲賊。(『論語·憲問』)

(어려서는 공손하지 못하였고 어른이 되어서도 본받을 것이 없었으며, 늙어서 죽지조차 아니하니, 이는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爲’가 ‘되다’라는 동사 의미가 아니라 주어와 빈어의 일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14)는 주어가 ‘是’인 유표지 판단문이 된다.

(15) 爵無及惡德，民立而正事，純而祭祀，是爲不敬；事煩則亂，事神則難。(『禮記·緇衣』)

(작록이 악덕에 미치게 하지 않으면 백성이 일어나서 바른 일을 할 것이다. 악덕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경이니 일이 번거로우면 어지러워지고 신을 섬기면 어려워진다.)

(16) 百姓歸之名，謂之君子之子。是使其親爲君子也，是爲成其親之名也已！(『禮記·哀公問』)

(백성이 귀복하여 그를 군자의 아들이라고 이름하면 그것은 그 아버지로 하여금 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禮記』의 두 예문에서도 ‘爲’는 판단의 대상과 내용을 연결하는 판단사로 쓰였다. 특히 두 번째 예문에서는 ‘是’가 전방의 ‘百姓歸之名，謂之君子之子’를 지시하는 주어로 쓰인 문장 두 개가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是’ 판단문에서는 ‘爲’가 ‘되다’라는 어휘의미를 가진 동사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 판단문에서는 ‘爲’가 판단사로 사용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17) 故說詩者，不以文害辭，不以辭害志；以意逆志，是爲得之。(『孟子·萬章上』)

(고로 시를 말하는 자는 글로써 말을 해치지 않고, 말로써 뜻을 해하지 않으며 자기의 뜻으로써 지은이의 뜻을 탐지하니 이것이 시를 아는 것이다.)

『荀子』에서도 ‘爲’가 관계를 표시하는 판단사로 쓰인 예는 아래의 문장 한 개의 용례만 조사되었다.

(18) 蘭槐之根是爲芷, 其漸之滫, 君子不近, 庶人不服。(『荀子·勸學』)

(난과의 뿌리, 이것이 구리때인데 그것을 구정물에 적셔두면 군자도 가까이 않으려니와 범인들도 그것을 몸에 지니지 않는다.)

전방 조응사 ‘是’와 ‘此’가 사용된 판단문에서 이 대명사들의 기능은 길고 복잡해진 주어의 지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18)의 주어는 하나의 명사구로 이루어져 전방조응사의 지시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거나 길지 않다. 그렇지만 ‘爲’로 연결되는 전, 후 성분을 살펴보면 ‘是’가 판단의 대상, ‘芷’가 판단의 내용이 되므로 ‘是’를 전방의 ‘蘭槐之根’을 지시하는 조응사로 볼 수밖에 없다.

‘爲’가 판단사로 사용된 문장에서 ‘是’가 주어로 사용된 예는 이상의 5개이다. 절대량이 매우 적어서 ‘是’가 유표지 판단문의 주어로도 쓰일 수 있는 강한 ‘주어 지향성’¹⁶⁾을 가졌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爲’ 판단문의 형식주어로 ‘此’가 사용된 예는 한 개도 없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是’가 형식주어로 쓰인 유표지 판단문 ‘爲’ 판단문의 예는 비록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此’가 갖지 않은 ‘是’의 ‘주어 지향성’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3.2 ‘謂’ 판단문의 주어 ‘是’

3.2.1 [주어, 是謂빈어]

16) ‘是’의 이러한 특징을 ‘문두에 놓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에 설명될 ‘謂’와 ‘之’ ‘謂’ 형식에서의 ‘是’, ‘此’처럼 문두에 쓰이더라도 다른 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문장성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일괄 처리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此’의 특징과 구분 짓기 위해 ‘是’의 ‘문두 지향’이 아닌 ‘주어 지향성’으로 설명한다.

판단사 '謂'가 쓰인 유표지 판단문¹⁷⁾의 주어로 대명사 '是'가 쓰여 앞쪽의 실제 주어
를 지시하는 문장이다.

이 형식의 판단문 용례를 살펴보면, 『禮記』를 제외한 기타 저작에서 주어 자리에
모두 대명사 '是'만 사용된다.¹⁸⁾ 대명사 '此'가 대부분 전형적인 무표지 판단문 형식에
쓰인 것과 달리, '是'는 '爲' 판단문에 이어 또 다시 유표지 판단문의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是'가 전방의 주어를 지시하는 형식주어로 쓰여 판단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 '此'보다 강한 결합능력을 지녔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19) 今之孝者, 是謂能養。(『論語·爲政』)

(지금의 효라는 것은 잘 봉양하는 것이다.)

(20) 以不教民戰, 是謂棄之。(『論語·子路』)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써서 전쟁하는 것, 이것은 백성을 버리는 행위이다.)

(21) 過而不改, 是謂過矣!(『論語·衛靈公』)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論語』의 '是' 판단문에서 '謂'가 주어와 빈어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판단사로 사
용된 예는 이상의 3개이다. 반면, 『論語』에는 '此'라는 글자가 아예 사용되지 않아
'此謂' 형식은 쓰이지 않았다.

『左傳』, 『禮記』, 『荀子』에서 이 형식에 해당하는 예는 각각 9개, 20개, 2개가
있다. 『孟子』에는 [주어, 是謂빈어], [주어, 此謂빈어] 두 형식 모두 쓰이지 않았다.

(22) 晉侯曰: 「十二年矣, 是謂一終, 一星終也。(『左傳·襄公九年』)

(진도공이 말했다. "12세군요. 그것이 일종(一終)인데 이는 일성종(목성)을 말

17) '謂'는 '~라고 이르다'라는 동사의미가 있지만 본 논문의 분류에서는 주어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의 관계를 표시하는 판단사에 해당하는 것을 분리해낸 것이
다.

18) 『禮記』에는 '是'가 주어로 쓰인 판단문이 47개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是謂' 형식이 20개로 높
은 비율을 나타낸다. 기타 저작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此謂' 형식도 11개가 쓰이고 있다. 『禮
記』에서는 판단을 표시하는 '謂'도 '之謂'형식으로 사용되는 예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발견된다.

하는 것이오.”)

(23) 當夏四月, 是謂孟夏。(『左傳·昭公十七年』)

(하력의 4월에 해당하니 이 달이 맹하입니다.)

(24) 祭殤不舉, 無所俎, 無玄酒, 不告利成, 是謂陰厭。(『禮記·曾子問』)

(상을 제사지내되 희생의 폐척을 시동에게 주는 절차가 없고 기조가 없으며 현주가 없고 공양의 예가 이루어졌음을 고하지 않으니 이것이 음염이다.)

(25) 能論官此三材者而無失其次, 是謂人主之道也。(『荀子·君道』)

(이상 세 가지 재목의 사람들을 잘 따지고 골라 벼슬자리에 앉혀 그들의 서열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임금의 도이다.)

절대 수량이나 비율적으로 볼 때, [주어, 是謂빈어] 형식은 『禮記』를 정점으로 『孟子』, 『荀子』로 이어지면서 점차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是謂빈어' 형식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눈에 띄는 현상은 '是之謂', '此之謂' 형식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之謂' 형식이 사용되는 양상을 통해 대명사 '是'와 '此'의 기능 분담을 살펴볼 것이다.

3.2.2 [주어, 是之謂빈어]

[주어, 是謂빈어], [주어, 此謂빈어] 형식은 『孟子』에서는 그 사용이 전무하고 『荀子』에서도 [주어, 是謂빈어]의 용례만 2개 조사되었다. 『荀子』에서 '是'구조 문장의 총수가 337개인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이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謂'를 통해 판단관계를 표시하는 형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荀子』로 이어지면서는 '謂' 형식이 아니라 '~之謂' 형식의 사용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是之謂', '此之謂'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之'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설명을 보면 '~之謂' 형식에서 '之'가 담당하는 작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6) 生之謂性。(『孟子·告子章句上』)

(생긴 대로 하는 것이 본성이다.)

(27) 可欲之謂善。有諸己之謂信。充實之謂美。充實而有光輝之謂大。大而化之之謂聖。聖而不可知之之謂神。(『孟子·盡心章句上』)

(본성이 하고자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선한 덕성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신용이 있는 것이다. 선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선한 것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그 빛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위대하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다. 성스러워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신령스러운 것이다.)

(26), (27) 에 대해 黎錦熙는 “‘之’는 주어의 동격으로서, ‘生이라는 것은 性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¹⁹⁾ ‘之’ 앞의 내용이 주어에 해당하고 ‘之’는 이를 다시 지시하는 대명사라는 설명이다. “‘之謂’ 앞의 내용은 대부분 설명의 성격을 갖고 길이가 긴 편이기 때문에 대명사 ‘之’로 다시 지시해줌으로써 휴지를 두는 작용을 한다. 특히 해설하는 어구가 복잡해져 반드시 ‘是’나 ‘此’로 지시해야 할 경우에는 ‘之’가 반드시 쓰인다.”²⁰⁾

黎錦熙의 설명을 보면 ‘之謂’에서 ‘之’가 담당하는 작용은 무표지 ‘是’ 판단문에서 길고 복잡해진 주어(판단대상)를 지시하는 대명사 ‘是’와 비슷해 보인다. 특히 “‘之謂’ 앞의 내용이 대부분 설명의 성격을 갖고 길이가 긴 편이기 때문에 대명사 ‘之’로 다시 지시해줌으로써 휴지를 두는 작용을 한다.”는 내용은 대명사 ‘是’가 판단사로 변화하기 이전에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서 담당했던 역할과 일치한다.

‘之’의 기능이 대명사 ‘是’, ‘此’처럼 전방의 주어를 지시하는 것이지만, ‘是謂’, ‘此謂’, ‘之謂’ 형식에서 세 대명사가 대등하게 지시기능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해설하는 어구가 복잡해져 반드시 ‘是’나 ‘此’로 지시해야 할 경우에는 ‘之’가 꼭 쓰였다.”는 黎錦熙의 지적을 되새겨보면 세 대명사가 담당할 역할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길어진 주어에 대한 지시기능은 ‘是’, ‘此’가 ‘之’를 앞선다는 것이다.

이로써 ‘是之謂’와 ‘此之謂’에 쓰인 ‘之’는 바로 앞에 놓인 ‘是’, ‘此’에 대한 동격의 표

19) 黎錦熙 『比較文法』 “‘之’者主語之同位, 猶云‘生這東西叫做性’也。” 郭廣敬(1984:90)에서 재인용.

20) 郭廣敬(1984:90) ‘之謂’前的詞語是解釋性的, 一般詞語較長, 因之, 須用指代‘之’字以重指, 略有提頓作用. 尤其是, 當解釋性的語句比較複雜‘是’或‘此’重指的時候, 指代‘之’字更不可少.

시이고, 이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는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의 관계를 표현하는 '是謂', '此謂' 형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대명사 '之'의 지시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지만 黎錦熙가 간과한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가 예로 든 문장이 모두 '謂'의 전, 후에 각각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에 해당하는 성분이 제시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之謂' 형식의 문장에 보충어가 쓰이는 것은 아니다. 보충어가 없는 '之謂' 형식의 예를 살펴보자.

(28) 諺所謂『輔車相依，唇亡齒寒』者，其虞、虢之謂也。(『左傳·僖公五年』)

(속담에서 말하는 '보거상의, 순망치한'이 바로 우리나라와 궤나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29) 所謂故國者，非謂有喬木之謂也，有世臣之謂也。(『孟子·梁惠王章句下』)

(이른바 고국이란 아름답다 큰 나무가 있음을 가리켜 말함이 아니라 대대로 원로의 신하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之謂' 뒤로 보충어가 이어지지 않는 (28)~(29)의 의미관계를 살펴보면 '之謂' 앞에 놓인 성분은 판단대상이 되는 주어가 아니라 '謂'의 빈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충어가 쓰이지 않는 '之謂' 형식에서 '之謂' 앞에 위치한 성분은 모두 이처럼 판단사 '謂'의 판단대상이라는 동일한 문법의미를 지닌다.

'之謂' 뒤로 보충어가 이어지는 (26), (27)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이 '之謂'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보충어의 유무에 따라 그 앞의 내용이 주어인지 전치된 목적어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든 '之謂' 형식에서 '之'는 전방의 어떤 내용을 지시하는 작용을 담당하지만 '之謂'의 보충어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따라서 그 지시대상이 주어일 수도, 또는 목적어일 수도 있으므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계속해서 '之謂' 판단문 형식의 주어로 쓰이는 '是'에 대해서 살펴보자.

[주어, 是謂빈어] 형식과 마찬가지로 [주어, 是之謂빈어] 형식에서도 '是'는 전방의 '주어'를 지시하는 대명사이고 '之'는 '주어의 동격 대명사'²¹⁾로서 앞의 '是'를 지시하는

21) 郭廣敬(1984:90), “~, ‘此’字, ‘之’字都是主語的同位指代, 重指前詞或語句。”

기능을 한다.

(30) 順於道不逆於倫，是之謂畜。(『禮記·祭統』)

(도의에 따르고 윤리에 거스르지 않는 것, 이것이 축이다.)

『禮記』에서는 [주어, 是謂빈어] 형식과 [주어, 是之謂빈어] 형식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다만 빈도 면에서 '是謂' 형식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 총 20개의 예가 발견된 데 반해 '是之謂' 형식은 1개의 예가 쓰였다. 하지만, 『孟子』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대명사 '是'나 '此'가 판단사 '謂'의 주어로 직접 쓰이는 예는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데 반해 '之'를 통해 연결되는 형식은 8개가 쓰였고 『荀子』에서도 '是謂' 형식은 2개로 극히 적은 출현빈도를 나타냈지만 '之'를 통해 연결되는 형식은 184개가 사용되고 있어 판단사 '謂'의 사용은 '之謂'의 형식으로 굳어져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荀子』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之謂'와 대명사 '是', '此'와의 철저한 결합규칙이다.

『荀子』에서 보충어를 갖는 '~之謂' 형식은 총 94개의 예가 사용되고 있다.

(31) 敵國不待服而誅，四海之民不待令而一，夫是之謂至平。(『荀子·君道』)

(적국은 복종하기를 기다리기도 전에 굴복해 오고 온 세상 백성들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지극한 다스림'이다.)

(32) 其德音足以填撫百姓，其知慮足以應待萬變，然後可；夫是之謂國具。(『荀子·

君道』)

(그 덕이 백성들을 쓰다듬어 안정시킬 만하고, 그 지혜와 생각이 온갖 변화에 대처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나라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이때 대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是'뿐이라서 94개의 용례 모두 [주어, 是之謂빈어]의 형식이고 [주어, 此之謂빈어]의 형식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있다.

한편, 『荀子』에서 보충어가 없는 '~之謂' 형식은 총 90개가 사용되고 있다.

(33) 志意修則驕富貴，道義重則輕王公；內省而外物輕矣。傳曰：「君子役物，小人役於物。」此之謂矣。(『荀子·修身』)

(뜻이 닦여지면 부유하거나 지위 높은 사람 앞에서도 교만할 수 있고, 도의가 중후해지면 임금이나 장관도 가볍게 보게 된다. 안으로 반성해보아도 밖의 사물이란 경미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전하는 말에 '군자는 외물을 부리지만 소인은 외물에 부림을 당한다.'고 한 것은 이것을 뜻하는 말이다.)

(34) 談說之術：矜莊以莅之，端誠以處之，堅強以持之，譬稱以喻之，分別以明之，欣驩芬薌以送之，寶之，珍之，貴之，神之。如是則說常無不受。雖不說人，人莫不貴。夫是之謂能貴其所貴。傳曰：「唯君子爲能貴其所貴。」此之謂也。(『荀子·非相』)

(말로 설복시키는 술법은, 공손하면서도 엄숙한 태도로 임하고 바르고 성의 있는 태도로 대처하며, 굳건하고 강하게 주장을 펴고, 비유를 들어가며 깨우치며 사리를 분별해 밝혀주고, 기뻐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여 자기 뜻을 이해시킴으로써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진귀하게 여기며, 귀중하게 여기고, 신묘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그의 이론은 언제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비록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두고 '그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전하는 말에 '군자만이 그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을 뜻하는 말이다.)

보충어가 쓰이지 않은 '~之謂' 형식 용례 90개 가운데 대명사로 '是'가 쓰인 것은 한 개도 없고 예문은 모두 '此之謂'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84개의 예문에서 보충어 유무에 대한 '是'와 '此'의 결합규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두 대명사가 철저하게 분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두 대명사가 모두 '之'와 함께 '謂'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是'는 바로 앞의 주어(주어)를 지시하여 판단사 '謂'의 형식주어(판단대상)가 되는 반면, '此'는 '謂'의 전치된 빈어(판단내용)로서 바로 앞의 주어(주어)가 아니라 그 전에 길게 설명된 내용을 지시하는 형식이 된다.

'是'하고 주로 결합했던 '謂' 판단문의 형식이 『禮記』를 정점으로 '之謂' 형식으로

변화하고 『荀子』에 이르면서 '是'는 주어, '此'는 목적어를 담당하도록 확실한 역할 분담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일견 문두에 위치한다는 공통적인 형식 특징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此'는 '是'만큼 강한 '주어 지향성'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어는 술어를 포함한 여러 문장성분을 이끌기 때문에 대명사 '是'가 강한 '주어 지향성'을 가졌다는 것은 [주어(판단대상), 是+술어(판단내용)]의 구조에서 다양한 형식의 술어와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또 판단사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

4. 대명사 '是'의 술어 결합성

무표지 판단문에서 대명사 '是'와 '此'는 길어진 주어를 지시하고 술어의 형식주어가 된다는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결합하는 술어의 성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가 바로 두 대명사가 갖춘 조건의 차이로서 아래에서는 대명사와 술어의 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4.1 '是'와 NP 술어의 결합

대명사 '是'나 '此'가 길어진 주어를 '지시'하는 무표지 판단문의 변형식에서 술어가 NP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명사 '是'와 '此'가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다. 크게 NP 형식이라고 분류하였지만 각 술어 구조의 차이에 따라 문장 형식을 아래 4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1) [S, 是N也]

술어 자리에 한 개의 명사 단어가 쓰이는 문장이다. 술어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지만 주어가 비교적 길고 복잡해서 술어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是'를 통해 연결되는 문장형식을 사용한 것이다.

(35) 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 是丘也。(『論語·述而』)

(나는 행하는 것마다 자네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아니다.)

(36) 闒然媚於世也者，是鄉原也。(『孟子·盡心章句下』)

(환관처럼 세상에 아첨하는 자가 향원이다.)

(37) 嫂溺不援，是豺狼也。(『孟子·離婁章句上』)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시랑이다.)

(38) 志壹則動氣；氣壹則動志也。今夫蹶者趨者，是氣也，而反動其心。(『孟子·公孫丑

章句上』)

(의지가 하나로 결정되면 기를 움직이고 기가 하나로 모이게 되면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 그런데 대체로 넘어진다는지 달려간다는 것은 다 기이나, 도리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니라.)

고유명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명사라도 겹품사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사단어들로 이루어졌다.²²⁾

2) [S, 是N之N也]

두 번째 형식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첫 번째 형식보다는 복잡해져서 조사 ‘之’를 통해 연결된 수식구조의 NP로 이루어진다.

(39) 吾不能早用子，今急而求子，是寡人之過也。(『左傳·僖公三十年』)

(내가 일찍이 그대를 중용하지 못하고 이제 나라가 위급해진 상황에 그대의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이는 내 잘못이오.)

(40) 亦悔于厥心，用集我文公，是穆之成也。(『左傳·成公十三年』)

(이후 유감을 표시하며 진문공을 귀국시켜 보위에 오르게 했으니 이는 모두 진 목공이 이룬 업적입니다.)

22) 동사와 명사, 형용사와 명사 등의 겹품사 단어일 경우에는 무표지 ‘此’ 판단문의 술어로 쓰이지 않으므로 NP 술어 형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41) 曾子曰：「小功不爲位也者，是委巷之禮也。」(『禮記·檀弓上』)
 (증자가 말하였다. “소공에서 곡하는 위치를 정하지 않는 것은 길거리의 예이다.”)
- (42) 故上之所好惡，不可不慎也，是民之表也。(『禮記·緇衣』)
 (그러므로 위사람의 좋고 싫음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백성의 본보기이다.)
- (43) 少事長，賤事貴，不肖事賢，是天下之通義也。(『荀子·仲尼』)
 (젊은 사람은 어른을 섬기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기고 못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천하에 통용되는 도리이다.)

무표지 ‘是’ 판단문의 네 가지 NP 술어 형식 가운데 ‘此’ 판단문의 술어 형식과 가장 일치되는 형식이다.

3) [S, 是NN也]

세 번째는 ‘수식어+중심어’라는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2)의 형식과 매우 흡사하지만, 조사 ‘之’의 연결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44) 我實不德，而以隸人之垣以贏諸侯，是吾罪也。(『左傳·襄公三十一年』)
 (내가 실로 덕행을 닦지 않아 예인의 집과 같은 곳에 제후들을 맞이했소. 이는 나의 잘못이오.)
- (45) 吾不先告子，是吾罪也。(『左傳·定公十三年』)
 (내가 그대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오.)
- (46) 雖其不善，吾亦知之；抑以利故，不能去，是吾過也。(『左傳·昭公二十年』)
 (그가 좋지 않다는 것은 나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롭다는 이유로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之’의 연결작용이 빠졌지만 대명사 ‘吾’와 결합한 ‘罪’, ‘過’ 등이 동사 술어로 해석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대명사와 명사가 직접 결합한 NP 구조로 파악한다.

4) [S, 是N之所V也]

네 번째 형식은 동사나 동사구를 NP화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사 '所'가 사용된 구조이다.

(47)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論語·里仁』)

(가난함과 비천함, 이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벗어남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48)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論語·里仁』)

(부유함과 높은 지위,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바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是'와 결합하는 NP 술어문의 형식은 이상의 4가지이다. 『論語』에는 총 8개의 무표지 '是' 판단문 가운데 4개, 『左傳』에는 총 76개의 무표지 '是' 판단문 가운데 8개, 『禮記』에는 23개 가운데 11개, 『孟子』에는 총 59개 가운데 5개, 『荀子』에는 240개 가운데 191개가 NP 술어문에 속한다.

각 저작의 무표지 '是' 판단문에서 NP 술어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論語』, 『左傳』, 『禮記』, 『孟子』, 『荀子』에서 각각 50%, 11.8%, 47.8%, 8.5%, 79.6%이다.

石毓智(2001)는 판단사 '是'의 발생 기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左傳』, 『論語』, 『荀子』에 사용된 '是' 판단문 중 '설명' 부분의 VP와 NP의 비율이 순서대로 78:22, 52:48, 22:78로 변화했으며, NP와의 결합이 증가하는 것은 '是'가 동사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판단사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²³⁾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각 저작의 시간적 순서를 『論語』, 『左傳』, 『荀子』의 순으로 배치했고 또 非NP 술어와 NP 술어의 비율이 50:50, 88.2:11.8, 20.4:79.6으로 나타나 石毓智(2001)의 분석과 차이는 있지만²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지

23) 石毓智(2001)는 대명사 '是'가 판단사로 발전하게 된 통사환경 '화제(Topic), 是+설명(Command)'에서 '是'가 SVO 어순의 영향을 받아 판단사로 '유추'되었다고 설명했다.

24) 石毓智(2001)는 '是' 판단문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肖嫻曼(2003a, 2005)이 '是'가 주어 자리에 있는 문장 중에서 '지시'와 '지칭' 기능을 가진 것을 모두 '是' 판단문의 범주에 포함시킨 점에 비춰 볼 때 石毓智도 필자와 다른 기준으로 '是' 판단문을 분류하여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 '是'가 대명사에서 동사로, 혹은 판단사로 변화하는 과정이나 그 기제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NP 술어와 결합하는 '是'의 용례 증가 등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무표지 '此' 판단문이 주로 대명사 '此'와 NP 술어 형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취볼 때²⁵⁾, 무표지 '是' 판단문에서 NP 술어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한 나머진 50%, 88.2%, 52.2%, 91.5%, 20.4%는 '此'와는 결합하지 않는, 주로 대명사 '是'만이 이끌 수 있는 술어 형식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대명사 '是'는 '此'가 갖지 못한 술어 결합능력을 이 비율만큼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아래에서는 대명사 '此'와는 거의 결합하지 않는 非NP 술어 형식을 분석해 볼 것이다.

4.2 '是'와 非NP 술어의 결합²⁶⁾

무표지 '是' 판단문에서 NP 형식 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형식의 술어는 구조의 차이에 따라 아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기술한다.

1) [S, 是단어也]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라는 것은 NP 술어 형식에서 쓰인 명사 단어와는 다른 성격을 의미한다. 형태변화가 없는 중국어의 특성상, 하나의 단어가 그 쓰이는 언어 환경에 따라 두 가지 품사의 문법특징을 갖는 것은 고금을 불문하고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다. 『漢書·韓信傳』에서 '衣', '食'이 명사, 동사로 모두 쓰일 수 있었고, 고서에

25) 肖婭曼(2005)에서 『左傳』과 『孟子』의 '是' 판단문과 '此' 판단문의 술어 성분을 비교한 결과 '是' 판단문은 VP : NP의 비율이 176개 : 53개로서 각각 76.9%와 23.1%의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是'가 VP 성분과 결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此' 판단문의 비율은 더욱 극명한데 VP와 NP의 비율이 1개:16개로서 6.3%와 93.7%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此'는 VP 성분과는 거의 결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26) 무표지 '是' 판단문과 '此' 판단문의 술어 성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사실로서, 肖婭曼(2005)은 두 판단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비율을 VP:NP로 비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VP는 NP와 비교하기 위한 상징적인 성분을 대표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是' 판단문 술어에는 VP 뿐만 아니라 SP, 복문 등의 다양한 형식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NP 역시 '是' 판단문의 술어형식 가운데 하나이므로 VP:NP의 비교가 아니라 'NP와 NP를 제외한 모든 술어 형식'의 구도를 강조하기 위해 VP 대신 非NP로 표시한다.

서 '書' 또한 '서적, 문서, 서신' 등의 명사 의미뿐만 아니라 '쓰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었다. '明'의 경우는 '빛'이라는 명사, '영명하다'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백히 밝히다'라는 동사까지 세 가지 품사를 겸하기도 했다.²⁷⁾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은 명백한 동사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술어가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대중국어 예로 들면, “她的愛好就是逛街。(그녀의 취미는 거리를 구경하는 것이다.)”에서 '逛街'의 사전적인 품사는 동사로 분류된다. 위 문장에서 담당하는 문장성분이 빈어이지만, 이러한 용법 때문에 '逛街'를 동사와 명사의 겹품사 단어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중국어 고유의 특징을 지닌 단어가 판단술어가 되는 경우에만 형식 1)에 포함된다. 이 같은 성격을 갖는 단어가 판단술어로 쓰이는 것은 대명사 '此'가 전방조용사로 쓰인 문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²⁸⁾ 즉, 문두에서 주어로 쓰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에서 대명사 '是'가 '此' 보다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49) 愛之欲其生，惡之欲其死；既欲其生，又欲其死，是惑也。(『論語·顏淵』)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살기를 바라고, 그를 미워할 때에는 그 죽기를 바라니 그 살기를 바라고 또 그 죽기를 바라는 것이 미혹된 것이다.)

(50) 子孫之守宗廟社稷者，其先祖無美而稱之，是誣也；有善而弗知，不明也；知而弗

傳，不仁也。(『禮記·祭統』)

(자손으로서 종묘와 사직을 지키는 자가 그 선조에게 아름다운 점이 없는데도 그것을 칭송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요, 좋은 점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 밝지 못한 것이며 알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으면 어질지 못한 것이다.)

'誘', '誣' 등은 명확히 겹품사 단어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²⁹⁾ 동사가 판단술어로

27) 楊伯峻·何樂士(2001),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 語文出版社, p.84

28) 본 논문에서는 '此'가 주어로 쓰인 판단문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연구범위 내의 저작에서 '此'가 주어로 쓰인 문장이 하나의 단어와 결합하는 예는 없었다.

29) 『古代漢語詞典』에 설명된 '誘'의 의미는 '引導, 引路', '啓發, 誘導', '引誘, 誘惑', '男女之間的挑逗' 등이 있고, '誣'의 의미는 '說話虛妄不實, 說謊話', '欺騙', '誣陷, 虛構罪惡加害于人', '濫用刑罰, 加罪于無辜' 등이 제시되어 있다.

쓰였음을 알 수 있다.

(51) 女弗聞而樂，是不聰也。(『左傳·昭公九年』)

(그대는 (순영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듣지 못하고 연주하고 있으니 이는 귀가 밝지 못한 것이오.)

(52) 今君之容，非其物也；而女不見，是不明也。(『左傳·昭公九年』)

(지금 임금님의 복식은 정해진 예를 따르지 않고 있소. 그대는 이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눈이 밝지 못한 것이오.)

(51), (52)의 '聰', '明' 등은 명사와 형용사의 겹품사 단어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문장 내에서 부정을 표시하는 '不'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형용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此'는 겹품사 단어뿐만 아니라 형용사, 형용사의 부정형식과 결합하는 예를 찾을 수 없다.

2) [S, 是VP也]

무표지 '是' 판단문의 술어형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동사구로 이루어진 이 형식이다. 石毓智(2001), 肖姪曼(2003) 등이 '是' 판단문의 술어 형식을 NP : VP 구도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53) 若襲之，是棄信也。(『左傳·成公六年』)

(만약 그들을 습격한다면 그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54) 祭成喪而無尸，是殤之也。(『禮記·曾子問』)

(성인의 영혼을 제사지내면서 시동이 없는 것은 그를 어린아이의 죽음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55) 君不鄉道、不志於仁，而求富之，是富桀也。(『孟子·梁惠王章句上』)

(임금이 정도로 향하지 않고 인에 뜻이 없는데도 그를 부하게 요구하니, 이것

30) 부정부사 '不'과 '非'의 의미특징이 있는데 '不'은 주로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이고 '非'는 체언성구(詞組) 앞에서 사용된다는 차이를 갖는다. 張皓得(1999), 『《祖堂集》不定詞之邏輯與語義研究』,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은 결왕을 부하게 하는 것이다.)

(56) 故非禮，是無法也；非師，是無師也。(『荀子·修身』)

(그러므로 예를 어기는 것은 법도가 없는 것이요, 스승을 배반하는 것은 스승이 없는 것이다.)

3) [S, 是SP也]

주술 구조의 문장이 '是'와 결합하여 판단내용-술어가 되고 있다.

(57) 三里之城，七里之郭，環而攻之而不勝；夫環而攻之，必有得天時者矣，然而不勝

者，是天時不如地利也。(『孟子·公孫丑章句下』)

(삼 리의 성과 칠 리의곽을 에워싸고 공격하나 이기지 못하니,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데 반드시 천시를 얻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것은 천시가 땅의 이로우만 같지 못한 것이다.)

(58) 其固塞險，形勢便，山林川谷美，天材之利多，是形勝也。(『荀子·勸學』)

(건고한 요새는 험하고, 땅의 형세는 유리하고, 산림과 냇물과 골짜기는 아름다웠으며, 천연자원의 이점이 많으니 이것은 지형이 뛰어난 것입니다.)

(59) 怒不過奪，喜不過予，是法勝私也。(『荀子·修身』)

(노여워도 지나치게 빼앗지 않고 기뻐도 지나치게 주지도 않으니 이것은 법도가 사사로움을 이기는 것이다.)

4) [S, 是복문也]

무표지 '是' 판단문의 술어 형식 가운데 가장 큰 단위로서, 복문이 사용되는 유형이다.

(60) 古之禮，慈母無服，今也君爲之服，是逆古之禮而亂國法也；(『禮記·曾子問』)

(옛날 예법으로는 자모를 위하여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께서 자모에 대하여 복을 입으시면 이것은 옛날의 예법을 거슬리는 것이 되어 나라의

법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61) 今惡辱而居不仁，是猶惡濕而居下也。(『孟子·梁惠王章句上』)

(이제 욕되는 것을 미워하면서 어질지 않은 데 머무는 것은, 젖는 것을 싫어하면서 낮은 데 사는 것과 같다.)

(62) 今也小國師大國，而耻受命焉，是猶弟子而耻受命於先師也。(『孟子·離婁章句上』)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스승으로 하되 명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이것은 제자가 선생에게 명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함과 같은 것이다.)

非NP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상의 4가지 술어 형식은 무표지 '此' 판단문 술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論語』 무표지 '是' 판단문 술어의 50%, 『左傳』 무표지 '是' 판단문 술어의 88.2%, 『禮記』 무표지 '是' 판단문 술어의 52.2%, 『孟子』 무표지 '是' 판단문 술어의 91.5%, 『荀子』 무표지 '是' 판단문 술어의 20.4%는 非NP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치는 술어와의 결합능력에 있어서 '此' 판단문에 대한 무표지 '是' 판단문의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현대중국어 판단사 '是'는 고대중국어의 판단문 [주어, 대명사 是+술어] 형식에서 발전하였다. 동일한 형식에서 함께 지시 기능을 담당했던 대명사로 '此'가 더 있지만 '是'만 판단사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此'는 변함없이 대명사로 남아 있다.

'是'가 '此'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판단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판단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此'와는 다른 두 가지 형식적 특징을 지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는 강한 '주어 지향성'으로 유표지 판단문의 주어로도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NP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술어와 결합하여 NP 성분과만 주로 결합했던 '此'보다 유연하게 술어와 결합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이 바로 대명사 '是'가 판단사로 '是'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참고문헌

- 『古代漢語詞典』(2001), 北京:商務印書館
- 이상하(2000),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郭广敬(1984), 「關於古漢語中‘是謂’‘之謂’‘謂之’的辨析」, 『信陽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3)
- 郭錫良 等(1996), 『古代漢語』(上), 天津教育出版社
- 賀敬華(2006), 「古代漢語判斷句」, 『大慶師範學院學報』, 26 (3)
- 黎錦熙(2000[1924]), 『新著國語文法』, 北京:商務印書館
- 石毓智·李訥(2001), 『漢語語法化的歷程-形態句法發展的動因和機制』, 北京:北京大學出版社
- 肖姪曼(2003), 『漢語系詞‘是’的來源與成因研究』, 四川大學中文系, 博士學位論文
- _____(2005), 「上古‘是’判斷句與‘此’判斷句之比較」, 『古漢語研究』(3)
- 王力(1980), 『漢語史稿』, 中華書局
- _____(1993[1962]), 『古代漢語』, 中華書局
- 楊伯峻, 何樂士(2001),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下), 語文出版社
- 張皓得(1999), 『‘祖堂集’否定詞之邏輯與語義研究』,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

Abstract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Shi(是) in Forming Process of copula

Jung Hyun Ae

Both Shi(是) and Ci(此) could be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Shi(是) is at much greater rate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than Ci(此). One of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Shi is that Shi can be used as a subject of a copula.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in general, Shi(是) takes its place before predicate words, while Ci(此) before noun words. Such an inner characteristic is why Shi(是) became a word of judgment later.

key words : Shi(是), Ci(此), sentence of judgement